

[남태령에서]

최민 상임활동가

2024년 12월이 이렇게 뜨거울 줄 누가 알았을까요? 12월 3일 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너무나 끔찍하고 충격적이었지만, 바로 이어진 뜨거운 광장은 민주주의가 강하다는 것을 다시 느끼게 해 주었습니다. 그 중 최고는 12월 21일~22일 밤 남태령에서 경찰차벽에 막힌 전봉준 투쟁단의 트랙터 시위를 시민들이 밤새 지킨 장면이었습니다.

조직된 대오도 있었지만, 농민들이 걱정되어 자발적으로, 광화문 집회가 끝난 뒤, 삼삼오오 모인 1030 여성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차창 활동가인 저도 뒤뉘어하고 집에서 쉬었는데, 그 추운 밤, 하필 그 긴 동짓날 밤에 남태령 고개를

지킨 여성 시민들의 모습이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들이 “강고한” 연대로 지킨 시간과 공간 덕에 다음 날 낮에 더 많은 시민들이 모일 수 있었고, 결국 트랙터를 한남동까지 끌고 갈 수 있었습니다.

이미 12월 4일부터 매일 열리는 광장에 여성 청/소년들이 많다는 점을 누구나 느낄 수 있었지만, 이들의 연대가 어찌면 너무나도 멀게 느껴지는 '전봉준 투쟁단'에게까지 연결되었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성폭력, 데이트 폭력에 시달리고, 코로나 이후 20대 여성 자살율이 올라가고, 유리멘탈이니 캥거루족이니 하는 얘기가 다 담지 못했던 형상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때보다 여성농민들의 발언도 많았습니다. 이런 게 서로 힘을 북돋는 연대가 아닐까요? 한노보연 활동가들도 그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남태령 대첩 후 온라인에 화자되는 한강 작가의 시로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함께 무언가를 건너고 있습니다.



▲ 남태령에서 21일 밤을 함께 새운 시위대가 22일 저녁 대통령 공간 앞에 도착해 마무리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 : 노동과세계

전철 4호선,
선바위역과 남태령역 사이에
전력 공급이 끊어지는 구간이 있다.
숫자를 세어 시간을 재보았다.
십이초나 십삼 초.
그사이 객실 천장의 조명은 꺼지고
낮은 조도의 등들이 드문드문
비상전력으로 밝혀진다.
책을 계속 읽을 수 없을 만큼 어두워
나는 고개를 든다.
맞은편에 웅크려 앉은 사람들의 얼굴이 갑자기
파리해 보인다.

기대지 말라는 표지가 붙은 문에 기대선 청년은
위태로워 보인다.
어둡다.
우리가 이렇게 어두웠었다.
덜컹거리는 소리에 귀 기울이면
맹렬하던 전철의 속력이 서서히 줄어들고 있다.
가속도만으로 레일 위를 미끄러지고 있다.
확연히 느려졌다고 느낀 순간,
일제히 조명이 들어온다, 다시 맹렬하게
덜컹거린다. 갑자기 누구도
파리해 보이지 않는다.
무엇을
나는 건너온 것일까?